

김남길 프로파일러로 안방극장 복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SBS 14일 밤 첫 방송

‘악’ (惡)이라 불리는 자들의 속내를 치열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프로파일러 이야기 안방극장을 찾는다.

SBS TV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11일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열고 오는 14일 밤 10시 첫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겸임교수가 실화를 바탕으로 집필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심리 분석을 통한 범인추적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고 수사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유쾌한 다크히어로극으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열혈사제’ 이후 3년 만에 안방에 복귀한 배우 김남길(41)은 “섬세한 연기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 송하영 역을 맡은 그는 “그러면 안 되지만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변화를 읽으려 집중하다 보니 악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했다”며 “그런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송하영의 모델이 된 권일용 교수에 대해서는 “외관상으로는 무뚝뚝하고 무서울 것 같으신데 굉장히 밝으셔서 그런 반전 매력에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수님이 젊으셨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싱크로율이) 100%라고 생각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SBS TV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출연진 (왼쪽부터) 배우 진선규, 김소진, 김남길. /SBS 제공

이어 “현장에서 당시의 시대상이나 직업적인 고충 등을 직접 얘기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경찰 조직에서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는 범죄행동분석팀장 국영수 역을 맡은 진선규(45)는 “대본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다”며 “이제껏 많은 드라마가 프로파일러라는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지만, 그 직업군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흥미로웠다”고 작품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이번 작품으로 지상파 드라마 첫 주연을 꿰찬 그는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면서 “숫자상으로 표현되는 시청률도 중요하겠지만, 남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잘 만들어진 드라마여서 시청자분들도

잘 봐주시길 바랄 뿐”이라고 웃었다.

기동수사대 팀장 윤태구 역을 맡은 김소진(43)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그 시절 여자 형사로서 겪어야 했던 많은 견제와 편견 속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단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연기이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하고 무서웠다”면서도 “작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같이 하는 과정이 굉장히 가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 참여했다”고 말했다.

박영수 총괄 프로듀서는 “원작 도서를 3년 전 처음 접했는데, 혁신적인 방법으로 흉악 범죄를 막고자 노력하는 분들의 강인한 의지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며

“원작이 가진 힘을 드라마에 담고 싶었다”고 제작 계기를 밝혔다.

국내 최초의 프로파일러들이 마주한 당시 현실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잘 담아내고 싶었다는 그는 “다만 시간이 흘러도 범죄의 상처와 아픔이 지워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 만큼 범죄 현장과 희생자를 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남길은 “지금 시대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면서 해소해야 하는 이야기이고 의미 있는 작품”이라며 (범죄가) 한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간의 이해와 배려, 관심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백세시대 이제 절반, 똥터해야죠”

가수 이강 지난해 발표한 ‘오라이’로 이름 알려

“요즘은 백세 시대잖아요. 이제 절반 살았으니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가수는 연령 제한이 없잖아요.”

지난해 첫 음반 ‘오라이’ (All Right)를 발표한 가수 이강(본명 이강재·57)은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56살,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 나이에 그는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다. ‘세상 살이 별거 있나/ 내 뜻대로 살면 되지/ 내 인생 주인은 바로 나잖아’라는 노랫말과 함께였다.

이강은 12일 인터뷰에서 “가수로 데뷔해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며 “무대에서 쓰러질 때까지 노래해 드는 직업이니까 ‘똥터’ (오래 한다든 뜻) 할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어렵지만 꿈이었지만 그래도 포기 안 됐죠.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서부터 호프집이나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했어요. 딱 한 시간이 제 무대였는데 몸은 고단해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웃음)

그 길로 이강은 매주 충북 제천의 작업실을 찾아 이른바 ‘특훈’을 했다. 정식으로 노래를 배운 적이 없다 보니 초심자의 마음으로 발성부터 기본기를 하나하나 다졌다.

작은 무대에서 차근차근 쌓아 온 그는 지난해 연말 한국가요작가협회 ‘신인가수상’, 한국가요작가협회 ‘올해의 히트상’, 가요TV ‘스타가수상’ 등을 받으며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강은 “평소 ‘생각은 곧 말이고, 말은 곧 행동이고, 행동은 미래를 좌우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묵묵히 노래를 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상을 받을 줄은 몰랐다”며 주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데뷔한 터라 아직 관객 앞에서 노래할 적이 많지 않다”며 “작은 무대라도 불러만 주시면 찾아가서 열심히 노래하고 싶다”고 바랐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저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고,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며 그들을 마음의 고향으로 이끌고 싶을 뿐이에요. 편한 한 가수로 길게 노래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연합뉴스



영화 ‘특송’ 박소담 /NEW 제공

갑상샘암 수술 후 회복중 “건강하고 재밌는 삶 목표”

‘기생충’으로 전 세계에서 인지도 높은 배우 박소담이 액션 영화 ‘특송’의 단독 주연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말 갑상샘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박소담은 지난 11일 서면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 중”이라며 감사 인사를 먼저 전했다.

그는 “정말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기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면서도 “앞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다. 잘 회복하고 더 관리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데뷔 10년 차에 첫 단독 주연을 맡게 된 그는 “내 얼굴이 아주 크게 포스에

터에 나오고 극장에 걸리는 게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소담은 ‘특송’에서 단단 주연 무엇든 배워주는 특송 전문 드라이버 윤하 역을 맡아 고난도의 자동차 추격전과 맨몸 액션을 선보인다.

그는 “아니 시절부터 달리고, 몸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며 “좀 더 다양한 액션을 해보고 싶었는데 카체이싱과 맨몸 액션 두 가지에 모두 도전할 수 있어서 더 욕심이 났다”고 했다.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항상 해왔기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면서도 “앞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다. 잘 회복하고 더 관리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못 해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못 했던 부분들도 다 돌아보고 잘 회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연합뉴스

돌아온 ‘싱어게인2’ 3주 연속 상위권

시즌1 감동은 그대로 재미는 배로 더해

1년 만에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싱어게인2’가 여전히 화제를 모으고 있다.

12일 CJ ENM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작년 12월 27일~올해 1월 2일) 콘텐츠영향력평가지수 집계에 따르면 JTBC 음악 경연 프로그램 ‘싱어게인2’는 종합 부문 5위, 예능 부문 2위에 올랐다. CPI 지수는 246.5를 기록했다.

지난달 6일 방송을 시작한 ‘싱어게인2’ 시청률은 첫 회에 5%를 돌파했으며, 방송 5회 만에 8%를 기록했다. CPI 순위에서는 작년 12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5위 안팎을 유지했다.

무대가 간절할 가수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기획된 ‘싱어게인’은 시즌 1에서 이승훈, 정홍일, 이무진 등 숨겨진 실력자들을 재조명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시즌 2에서도 데뷔 41년 차 가수인 39호,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대가

그리워 출연했다는 63호, 성대 수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는 아이돌 그룹 멤버 57호 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그룹 배따라기 멤버인 39호는 지난 10일 방송에서 최연소 참가자인 64호와 합동 무대를 선보인 뒤 “새싹은 자라나야 한다”며 경쟁 상대를 응원해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다.

논란도 있었다. 묵직한 목소리로 심사위원을 사로잡았던 30호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싱어게인2’는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 안정감을 찾은 듯한 모습이다. 참가자들 각각의 특징을 잘 잡아내 캐릭터를 만들어낸 결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음색이 청아한 39호는 ‘소녀감성’, 39호와 맞대결을 펼친 최연소 참가자는 ‘싱



싱어게인2 /JTBC 홈페이지

어게인2 공식 팸플’, 가수 김범수와 얼굴 형이 비슷한 37호는 ‘기왕의 하관’이라는 유튜버 채널을 열고 참가자들의 무대들을 공개해 온라인에서도 방송의 열기가 이어지도록 했다. /연합뉴스

로 분석된다. 아울러 ‘싱어게인 전체공개’라는 별도의 유튜브 채널을 열고 참가자들의 무대들을 공개해 온라인에서도 방송의 열기가 이어지도록 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13일 (음력 12월 11일)

48년생 합리적인 이유 없는 호의는 받지 말라. 60년생 적절한 휴식은 밝은 내일을 약속한다. 72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84년생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52년생 분명하게 입장표명을 해야만 손해가 없다. 64년생 승승장구하는 날이다. 76년생 오늘은 뭘 해도 되는 날이다. 88년생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이다.

44년생 세상에 믿음만한 놈이 없다. 56년생 냉정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68년생 주변 분위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 80년생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49년생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61년생 좋은 자리로 옮길 운세다. 73년생 순리를 따르면 모든 일이 순탄하다. 85년생 사랑과 용서가 요구되는 때다.

41년생 새로운 기쁨을 발견한다. 53년생 작은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 65년생 지나친 열기 때문에 일을 망칠 수도 있다. 77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45년생 이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57년생 내일을 위해 참고 인내하라. 69년생 잘 찾아보면 내 편이 한명만 있다. 81년생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다.

50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62년생 희망은 알고 갈아서 풀어야 넣을 수 있다. 74년생 운명은 거역할 수 없다. 86년생 일단년부터 살고 봐야 한다.

42년생 명예와 금보화를 한꺼번에 얻는다. 54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 66년생 위기는 곧 기회 될 수도 있다. 78년생 지나치게 친절한 자를 조심하라.

46년생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는다. 58년생 천하에 명성을 떨친다. 70년생 기본 소식을 듣고서 표정관리를 한다. 82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51년생 첫인상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63년생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는다. 75년생 되는 일이 없다. 87년생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43년생 사람이 재산이다. 55년생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라. 67년생 꿈은 이루어진다. 79년생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다.

47년생 모두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 59년생 고요함 속에 위태로움이 숨어 있다. 71년생 세상에 손해보고 파는 장사꾼은 없다. 83년생 반가운 소식이 있다.